1천만 시민을 일깨울 소중한 선전의 場

현 지하철 노조의 선전활동 점검

1. 들어가는 말

국내의 공기업 중 유일한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노동해방의 기관차'역할을 십분 발휘하고 있는 지하철노동조합이 그간에 해온 선전활동은 실로 역사의 한획을 그을 정도의 엄청난 것이었다.

하루 3백80만명 이동이라는 어마어마한 교통량을 책임지고 있는 지하철, 바꾸어 말하면 3백80십만명이 선전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것도 유동적이지 않는 고정적인 대상으로 말이다.

87년 이전까지 서울지하철공사는 소위 '노동귀족'이라 불리우는 노동자들이 '어용노조'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87년 7, 8월 노동자 대투쟁은 지하철 노동자들의 자주성을 한층 고양시켜 놓았다. 그리하여 그해 8월12일 지하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민주노조의 깃발을 자신들의 손으로 높이 세웠던 것이었다.

그 이후 여타 공기업노조 민주화 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급기야는 지하철 노조가 현대중공업노조, 마산 창원노련과 더불어 전국 노동운동의 상징적 위치로 그 지위가 급상 하게 되었다. 또한 전노협의 핵심인 서노협의 반 이상의 '힘'을 보유하고 있어 지하철 노조의 지위와 역할은 '노동해방의 선두주자'로 자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2. 본말

이렇게 성장한 지하철 노동조합은 89년 3월 투쟁에서 막강한 선전력을 십분 발휘하게된다. 지하철 노조는 먼저 왜 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동안 지하철 경사측이 범한 합의각서 불이행사실을 폭로해 내었고, 지하철 노동자들이 주86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과 심각한 공기오염의 악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음을 폭로 하였다.

지하철노동조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목전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억압받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 수천만 근로대중 전체의 해방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이들은 수백만 서울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정주영의 현중노조에 대한 테러 만행의 실상을 뚜렷하게 밝힘으로서 '가공할 만한 식칼테러'에 낙인을 찍었고, 왜 시민들이 아침마다 '출근투쟁'을 치러야하는지, 그 비리를 누가 저질렀고, 그 분담을 누가 지는지 유감없이 고발하였다.

89년 7, 8월 투쟁에서는 "지난봄 광란의 주택값 상승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다. 6개월 사이에 아파트 값이 두배이상 치솟았다"(동아일보 5. 27. 사설), '강남 요지의 아파트 값은 평당 1,000만원을 훗가하게 되었고, 그 중 가장 작다고 알려진 40평짜리 아파트 값이 4억에 이르게 되었다. 말이 4억이지 월40만원 받는 봉급생활자가 단 한푼도 쓰지 않고 꼬박 83년을 모아도 모자라는 돈이 4억이다'라고 시작하는 주택문제데 대한 선전물과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보다 19.8%나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겠다고 한다. 집값이나 물가가 천정모르게 치솟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농민에게는 임금과 쌀값을 10%이상 올려 줄 수 없다고 했던 정부가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을 펴기 위해 세금을 마구 올려도 좋은가?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와같이 늘어나는 세금을 노동자와 같은 봉급생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데 있다. 통계에 따르면 노동자는 내년도에 올해보다 무려 57%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노동자와 농민에게 분배는 안하고, 세금은 마구 거둬들여도 좋은가?라는 세금문제에 대한 선전물을 지하철 실내에 부착하면서, "봄바람이 불고 있어요, 여성 면내의는 하이나", "15년동안 동적자 협박해온 여성면도사, 주간경향", "마셔요 비비콜"따위의 부르주아 상품광고로 뒤범벅이었던 지하철 실내에 마침내 진실을 알리는 노란벽보가 자신의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하게 되었다.

"올들어선 '교통지옥 해결 이젠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출근길 서울시민, 짐짝만도 못한 인생인가? 교통지옥 그 원인은 도로를 점거한 승용차의 증가, 수송분담율 11.2% 밖에 안되는 승용차는 전체차량의 2/3, 통행량의 43.5%를 차지하여 버스등 교통을 마비시키는 주범입니다"라는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선전물과 또한 그 해결점을 수백만 서울 시민과 함께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있다. 이처럼 진실을 올바로 알리고자 하는 지하철 노조의 선전활동의 위력은 '무능정부'의 발을 동동 구르게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언제 역대정권이 발만 동동구른 적이 있었는가! 그 구르던 발로 지하철 노조를 짓밟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수십명의 꼭두각시를 고용, 부착된 선전물을 서울시민이 거의 귀가한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죄다 뜯어버리는 만행을 또한차례 저지른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인 노동대중은 몸으로 선전물을 보호하고 맞서왔다.

이러한 싸움은 지하철 노조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임을 증명해주는 사실이 속출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다름아닌 서울시민들의 격려 전화인 것이다. 하루에 무려 50통에서 1백통이 노조사무실에 걸려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일간지 신문사의 경우 독자의 항의 전화나 격려 전화에 대해서 1통의 경우 보통 1천명으로 환산하여 통계를 낸다고 보았을때, 하루 5만에서 10만여명의 서울시민이 지하철 노동자들의 선전활동에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셈이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하철 노조의 선전활동은 아직 '걸음마'단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지하철 노조의 파업시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하철 노조의 파업시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경우 조직적 차원의 연대는 못 이루더라도 감성적 차원의 연대는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열악한 상태이다. 그 예가 바로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서울시민은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지하철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상황이해보다는 자신의 교통수단의 단절로 인하여 느끼는 피해를 노동자에게 감성적으로 전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일간지신문의 경우도 지하철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을 지하철 노동자와 시민의 대립으로 와전시켜 파업의 본질을 현상적으로 파악, 왜곡시키는 처사 또한 '무시못할 만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지하철 노조의 파업을 고립화 시킴으로써 지배계급의 추상적인 탄압의 '억지명분'이 관철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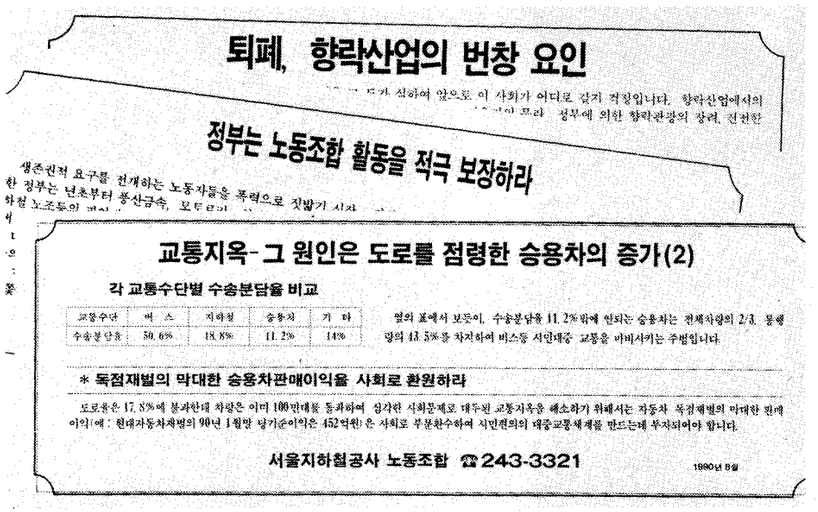
3. 나오는 말

부르주아 상품만 즐비하던 지하철 실내, 언제 부턴가 진실을 알리고 민중의 고통을 함께 풀어보고자 하나씩 붙기 시작한 벽보들, 자그마하지만 실로 큰힘을 지니고 있는 지하철 실내의 선전물은 이제 서울 시민들의 구경거리로서, 눈요기감으로서 자리하고 있던 상품광고 속에서 신선하고 힘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광고'로 자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선전물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반응또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하철 노조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선전작업과 선전물에 대한 시민들의 각양각색의 반응들을 충분히 수렴, 검토, 반영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 역시 노조원들의 선전활동에 애정어린 관심과 비판을 가함으로써 지하철 노조원들의 선전활동에 채찍 역할을 담당함이 필요 할 것이다. 향후 지하철 노조에서는 지하철 구내 방송망을 이용하여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거나 갈아타는 짬을 이용하여 방송을 통한 선전도 계획하고 있다. 요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하루는 정곡을 찌르는 정치해설, 하루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평론, 하루는 민중들의 정서가 스며있는 문화강좌등을 마련할 계획이라 한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지하철 공간에서의 시간들을 올바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서울 시민들의 생활상의 고통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측면에서 서울을 거미줄처럼 감싸고 있는 지하철 공간이야 말로 최대의 만남의 공간이자, 민중들의 고민을 함께풀어 보는 공간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특 집 부〉


퇴폐, 향락산업의 번창 요인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 보장하라

교통지옥-그 원인은 도로를 점령한 승용차의 증가(2)

각 교통수단별 수송분담율 비교

교통수단	버 스	지하철	승용차	기 타
수송분담율	50.6%	18.8%	11.2%	14%

* 독점재벌의 막대한 승용차판매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라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243-3321 1990년 8월

◇ 사진은 기간에 지하철 구내에 부착되었던 지하철 노조에 선전물

하루평균 서울시민 5~10만 지지보내
구내 방송망 통한 선전활동도 모색 중

건대 항쟁 4주기 맞는 우리의 현실

11월 총궐기를 승리로 이끌라는 선배들의 염원

데스크 칼럼

이 준 희
〈본보 편집장〉

86년은 학생운동사에 있어서 커다란 획을 그은 한 해였다. 다름아닌 건대항쟁이 있었던 해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 시대를 조명하기 위해 그날의 상황을 다시 점검해보자.

86년 10월 28일 건국대에서는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발족 대회가 있는 날이었다. 그날엔 전국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학생들이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같은날 오후 3시 경 학교주변을 미리 애워 싸고 있던 전경들은 정문과 후문에서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학내로 밀어 닥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에 학생들은 보이는데로 집어 던지며 저항을 하였지만 사전에 잘 훈련된 진압병력을 감당하기에는 역 부족이었다. 학내로 진입한 병력은 학생들을 포위, 건물안으로 몰아 넣으면서 유리창을 깨며 사과탄을 던져 건물을 완전하게 차단시켰으며, 그후 학내에 병력이 상주 하게 됨으로서 나흘간의 감금상태가 시작된 것이었다. 당시의 한 언론은 "이번 건국대 잿거농성 사태는 경찰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보도하였다. 각 건물에 갇힌 학생들은 경찰측의 단전, 단수로 인한 심한 배고픔과 추위의 악조건속에서도 눈물겨운 목소리들을 뱉어냈다.

다음날인 28일과 29일은 경찰과 충돌은 없었다. 그러나 학교측의 병력 철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전원연행이라는 방침을 밝히는 동시에 건국대 상공에 헬기를 동원하고 여자아나운서를 동원, 투항권고 방송을 하는 한편, 각언론 매체들을 통해 농성 학생 1천 5백여명을 친북한 공산 혁명분자로 몰아 전시회를 관람하러 건대에 왔던 타대 여학생조차도 어느덧 '빨갱이'로 낙인 되게 되었던 것이었다.

30일 저녁 무렵부터 진압설이 나돌면서 건국대 주변에는 긴장감이 돌았었으나 진압은 없었고 단지 다음날 전면전을 암시했을 뿐이었다.

31일 아침 10시경부터 드디어 진압작전이 떨어진 것이었다. 작전 명칭은 '황소 31 입체작전'이었다. 하늘에서 최루가스가 뿌려졌고 땅에서는 최루탄이 마구 쏘아졌다. 바리케이트를 뚫고 들어온 전경들의 쇠파이프는 학생들의 피를 요구했다. 유혈 참극은 1시간만에 사회과학관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진압되고 말았다.

직선제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 음모 분쇄투쟁을 천명한 애국 청년 학생들의 노력은 결국 1천 2백70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구속자를 내면서 그막을 내렸다.

전두환 정권의 장기집권 분쇄와 민주적 권리 쟁취와 미, 일 외세의 한반도에 대한 경제 침략저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쟁취하기 위하여 그간에 학생운동에 새롭게 제기된 '새로운 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했던 건대항쟁의 의의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며칠전 노정권은 최후의 자기보호책이라할수 있는 범죄 전쟁을 선포 하였다. 그후 그전 부터 계속되어 오던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은 더욱 악랄하고 노골화 되고있다. 지방대의 경우 학생회의 중심 간부및 학내 활동가를 미리 연행 구속 시키는가하면 전대협소속 간부들을 속속들이 잡아 들이고 있다. 91년도 학생회 선거를 전후로 벌이고 있는 이번 노정권의 '싹쓰리'는 91년도 학생회에 대한 사전 물갈이 작업과 더불어 날로 대중화 되어 가고 있는 학생운동에 대한 전면적 도전으로 보여진다. 또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보통,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나타는 데 자본가와 결탁 '무노동 무임금'을 고수하며 막무가내 형식으로 쟁의 활동에 대해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요사히 학내 집회의 경우 전경들의 학내 진입은 '식은 죽 먹듯'하고 있다. 한편으론 통일을 표방하면서 한편으로 민주세력들에 대한 탄압을 일삼고 있는 노정권으로 부터 무엇을 바랄 수가 있겠는가 아니 무엇을 바란다는 것은 이미 물건너 간일 이다.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될 때인 것 같다. 아직도 4년전 건대에서 끝까지 저항하다 무참히 짓밟혀 이끌려 나가면서도 당당하게 외친 "독재 타도, 민주쟁취"의 소리가 가을 바람에 실려 오는 듯하다.

아마 가을 바람에 실려오는 선배들의 "독재타도, 민주쟁취"는 이번 11월 총궐기를 승리로 만들어 내야한다는 간절한 염원일지도…

인터뷰

스쿨버스 운전기사 이 경 복씨

"수업시간은 다되가는데 스쿨버스가 늦게오거나, 출발하지 않고 사람을 더 태우려고 기다릴때는 학생들이 항의를 합니다. 운전기사의 자격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배차시간등의 문제를 가지고 항의를 해올때가 가장 난처하답니다."

87년 5월부터 본교 수원캠퍼스 강남, 학교간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는 이경복씨는 가장큰 고충을 위와같이 털어놓는다. 하루에 보통 강남과 학교를 3번에서 4번정도 왕복한다는 이씨는 "차를 운전하면서 가끔 학생들과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눌때가 있지요. 그럴때면 학생들의 생각과 생활이 그저 먼일 같지만은 않게 느껴져요"라며 "그러면서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이라면 야간에 흔히 볼수 있는 장면인데 학생들이 술을 과하게 먹어 차안에다 토하는 일이 일 것입니다. "87년만 해도 강남과 학교를 왕복하는데는 1시간30분이면 충분했었는데 지금은 2시간이 훨씬 넘게 걸리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스쿨버스가 대학생활의 일부를 차지하고 그속에서 조금이나마 무언가를 찾을수 있는 場이되지못하여 짜증스럽고 고통스럽기만 한거죠. 더불어 저희 운전기사들에게는 쉬는 시간이 줄어듬으로 인해 업무만 훨씬더 과중된 셈이지요" "예비기사가 한명도 없어요 기사들 중에는 나이드신 분들도 꽤 있으신데 만약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아플경우에는 정말 난감합니다. 더군다나 토요일등도 학생들의 M·T등으로 인해 못쉬는 경우도 있거든요"며 좀더 많은 기사의 확보로 업무부담의 고충을 덜었으면 했다.

> "교통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버스사용과 복지시설등의 문제정도는 신경을 써주었으면… "

식사제공도 전혀 안돼 자비로 사먹을뿐 아니라 운전기사 대부분이 수원에 거주하고 있어 강남행 10시차를 운전하고 나면 12시가 다되어서야 집에 도착한다고 한다. 더군다나 다음날 6시 정도에 출근해야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스쿨버스에 태울수가 있는 상황이다. "고생이야 처음 근무할때 부터 각오하고 있었던 거죠. 교통문제라면 사회적으로 악화돼 있는 상태이니까 우린 지금상황에서 학생들이 차를 깨끗히 이용한다든지 별로 심하지 않지만 차가 많이 막힐때 짜증을 참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정말 편히 쉴수 있도록 기사대기실의 복지시설도 신경좀 써주었으면 좋겠구요"라며 말을 맺는다. 〈映〉

진·로·결·정

진로와 함께 갑시다!
지금은 제일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여기 역동적이며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하는 진로그룹이 있습니다.
열정적이며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곳,
진로와 함께 갑시다!

■ 모집해당회사
(주) 진로, (주) 진로유통, (주) 진로식품, (주) 진로유니아티드디스틸러스, 진로유리(주), 진로음료(주), 진로위스키(주), 한국트러더미널(주), 서울남부터미널(주), 서울건해산물(주), (주) 가회통상, 도원개발(주), (주) 새그린, 연합전선(주), (주) 진로제약, 진로건설(주), 우신투자자문(주), (주) 우신상호신용금고

신입사원 모집요강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해 당 학 과	인원	응 시 자 격
관리사무직	상경, 법정, 인문·사회, 어문계열	약 100명	1. '62. 1. 1이후 출생자 (석사는 '60. 1. 1이후출생자) 2. 4년제 정규대학 해당학과 및 관련학과(무전공 포함) 졸업자(석사 졸업자 우대) 3. '91년 2월 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취득자 4.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현역인 경우는 '90년 11월30일 이전 전역 가능자)
전 산 직	전산학		
기술연구직	산업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금속공학, 건축공학 섬유공학, 화학공학, 요업공학 식품공학, 미생물공학, 원예학 농화학, 약학, 그래픽디자인 인테리어, 광고기획		
영 업 직	전학과(학과제한 없음)		

2. 전형방법

1) 1차 :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90. 11. 15(목) 한 개별 우편 통보)
2) 2차 :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일 시	'90. 11. 18(일) 09 : 00
장 소	우신중·고등학교(서울시 구로구 공동 소재)
과 목	관리사무, 영업 : 영어, 상식 기술연구, 전산 : 영어, 전공 ※ : 그래픽디자인, 인테리어는 영어 대신 전공

3) 3차 : 면접 및 신체검사(2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우편 통보)

3.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당그룹 소정양식) ……2부
2)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3)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석사에 한함) ……1부
4)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부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1) 기 간 : '90. 11. 1(목)-11. 6(화) 09 : 00-17 : 00(공휴일도 접수함)
2) 교부처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8-3 진로빌딩	(02) 588-7321
부산	동구 초량 3동 1168-1	(051) 462-4911~5
대전	중구 오류동 152-9	(042) 527-3301~5
대구	동구 신천 4동 289-5	(053) 755-1111~3
광주	북구 운암동 486-7	(062) 56-3117~8
전주	팔복동 1가 304-3	(0652) 74-3883
마산	상남동 97-5	(0551) 42-4135
진주	상평 서동 195-7	(0591) 52-5680
원주	우산동 63-5	(0371) 42-3825
춘천	효자동 1구 490-1	(0361) 54-2763
제주	연동 310-13	(064) 43-7890

3)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8-3 진로빌딩 2층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서초구청 맞은편)

5. 기 타

1) 국가보훈 대상자는 증명서류 첨부시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2) 우편접수는 동기우편으로 마감일 17 : 00한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자는 수험표 반송용 봉투(우표부착, 본인주소 기재)를 반드시 동봉하여 우송하기 바람)
3)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접수처(전화 : 588-7321 교)3121~8)로 문의바람.

진로그룹인력관리위원회